

【특집: 결산 2009, 각종별 배합사료산업 결산】

'09년 낙농산업 결산 및 금년도 전망



김 무 진
CJ제일제당(주)
축우PM 부장

▣ 2009년 낙농산업 결산

2008년도의 우리나라 사료산업은 사료용 곡물 및 선박운임의 폭등으로 인한 원가상승과 하반기이후 지속되고 있는 원화 가치의 폭락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환차손까지 겹쳐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였었다. 하지만 2009년에 들어서면서 곡물가격이 다소 안정세로 돌아서고, 환율까지 어느정도 안정세로 돌아서 전반적인 낙농사업의 외부환경은 다소 안정화되었던 한해였다.

그러나 2009년도 그 어느 해와 마찬가지로 낙농산업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다. 2009년 10월 기준으로 볼 때 낙농가수는 6,941호로 전년동기 7,402 대비 6.2% 감소하였다. 이는 하루에 1.3농가씩 폐업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내 원유생산량을 보면 '09년 10월까지의 원유생산량 누계치는 전년보다 1.8% 감소한 1,765천톤을 기록하여 전반적인 생산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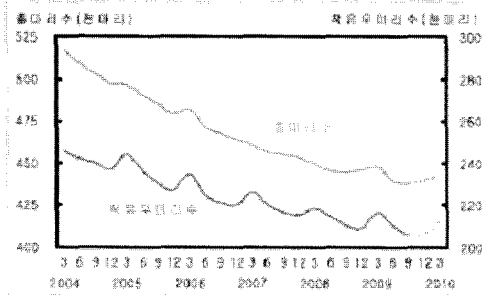
가 지속될 경우 2009년 생산량은 2,100천톤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0월까지 낙농사료 생산량은 전년 대비 5.5% 감소한 1,082천톤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원유 생산량 감소폭 1.8% 보다 훨씬 크게 감소한 것으로, 금년 들어 배합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배합사료 급여량 조절 및 조사료 급여 증가, 사육두수 감소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이해된다.

또한 2009년은 2007년 한미FTA에 이어 유럽연합(EU)과의 FTA협상도 2007년 5월부터 시작되어 2년여의 협상 끝에 지난 7월 타결되었다. 우리나라가 현재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유제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혼합분유의 경우 전체 수입량 중 EU로부터 수입된 양은 적게는 62.4%에서 많게는 84.2%를 차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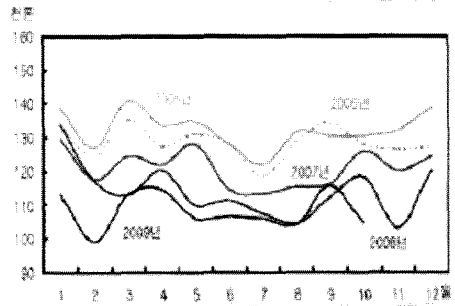
한·EU FTA가 타결돼 무관세나 현재보다 낮은 관세율로 EU로부터 유제품 수입이 허용될 경우 EU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절대 수입량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1. 젖소 사육마리수와 착유우마리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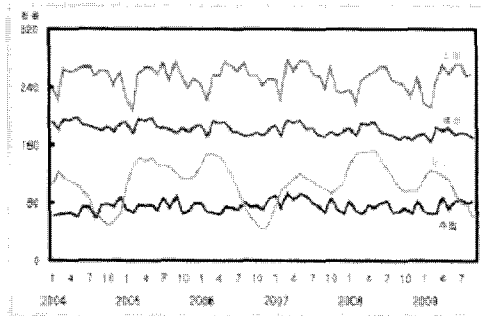
주: 2009년 12월, 2010년 3월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2. 젖소 배합사료 생산량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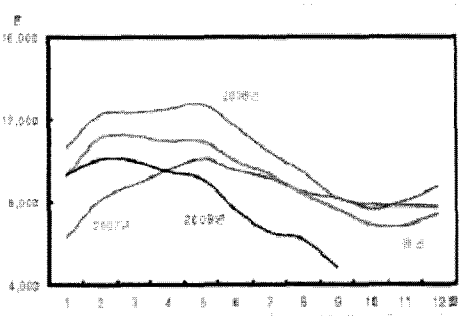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3. 원유 수급 동향



자료: 낙농진흥회

4. 분유 재고 동향



자료: 한국유가공협회

【낙농부문 한·EU FTA와 한·미 FTA 비교】

품목명(세번수)		실행세율(%)	한 EU FTA	한 미 FTA
전지분유(3)		176	현행유지 + TRQ (통합 1,000톤)	현행유지 + TRQ (통합 5,000톤)
탈지분유(4)		176		
연유(4)		89		
혼합분유(2)		36	10년간 철폐	10년간 철폐
치즈	(4)	36	15(체더10)+TRQ(4,560톤)	15(체더10)+TRQ(7,000톤)
	(커드, 블루바인)	36	10	10
버터(2)		89	10 + TRQ (350톤)	10 + TRQ (200톤)
데어리스프레드(1)		8	즉시철폐	즉시철폐
조제분유(2)		36	10 + TRQ (450톤)	10 + TRQ (700톤)
유장(7)		49.5	10 + TRQ (3,360톤)	10 + TRQ (2,000톤)
밀크와크림(4)		36	10 - 15	10 - 15
버터기제조제품		8	7	7

▣ 2010년 낙농산업 전망과 우리가 해야 할 일

2009년 말 기준 국내 확보된 사료원료의 가격은 다소 높지만 2010년도 국제 곡물 시장은 올해보다 전반적인 수급상황은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12월 3일 제이 오닐 미 캔사스 주립대 국제곡물프로그램(IGP)연구원은 한국사료협회와 미국곡물협회가 공동 주최한 ‘국내외 사료산업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세미나에 참석, 미국 및 세계의 사료곡물 수급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곡물가격이 투기자본 영향에 따라 불안한 장세를 보일 수 있다는 곡물가 불안정의 가능성도 이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국내 사육두수도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가정해볼 때 432천두수준으로 예측되며, 사육호수도 6,400호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육두수와 사육호수가 감소하는 반면 사료비등의 부담이 해소됨으로써 배합사료량의 급여량이 늘게되고, 젖소의 산유능력이 회복되면서 원유생산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배합사료 생산량도 2009년 대비 4%정도 감소한 1,230천톤 수준으로 예측되는데, 지속적인 급여형태가 TMR로 전환되는 낙농산업의 큰 트렌드 때문이다. 반면에 배합사료의 감소분은 고스란히 TMR의 생산량의 증가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2009년 우리 낙농업계는 많은 숙제를 받았고 그 숙제는 2010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첫번째는 ‘집유의 효율화’일 것이다. 즉 그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던 우수수급안정을 위한 제도 부분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는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유대산정체계 변경 문제이다. 현재의 유대산정체계는 원유의 유지방 함량과 위생등급에 따른 가격차등정책으로 그동안 국내산 원유의 유지방함량을 높이고, 위생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바는 사실이나 웰빙과 건강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식품소비성향과 기호의 변화와는 잘 부합되지 않고 있다.

낙농선진국의 경우 물론 치즈를 선호하는 식문화로 인한 이유에서지만 이미 유단백이나 무지고형물을 기준으로 유대가 정해진다. 향후 수입관문이 열렸을 때 이 부분은 우리 소비자들이 우유를 선택하는데 충분히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유대산정체계는 그동안 국내 모든 목장의 사양관리와 젖소의 개량을 한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유단백 위주의 유대산정을 할 경우 젖소의 개량부터 사료, 사양관리까지 많은 혼선과 시행착오가 예상되고, 심지어는 급전적인 이해까지 몰고 올 수 있다. 하지만 낙농산업의 직간접적인 업계들간에 어떻게든 슬기롭게 풀어야할 숙제임은 틀림없다.

셋째는 그동안 많은 낙농 컨설턴트들이 직간접적으로 강조했던 생산성 부분이다. 고곡가 시대에 국내 목장에서 우리도 모르게 일어났던 배합사료 줄여 먹이기와 저급 조사료 급여가 2009년도에 많은 목장에 문

제를 물고 왔다.

국내 원유생산량의 감소가 단순히 사육두수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우리는 다시한번 재고해봐야만 한다.

지난해부터 실제 낙농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합사료 줄여먹이기와 저급조사료의 사용량 증가가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저급조사료 급여를 늘리는 대신 고급조사료 비율을 낮춰 급여하는 동안 젖소들의 기초체력이 저하되면서 두당 산유량도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스럽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10년 곡물가나 환율은 다소 안정세로 돌아서서 사료비로 인한 생산비의 증가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착유우의 경우 전문컨설턴트에 의하면 체형자체가 많이 망가져 있다고 한다. 체형 손실은 그 당시에서는 큰 문제로 나

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다음 산차가 돌아왔을 때 번식 문제로는 호르몬의 불균형, 발정 지연, 미약발정 및 수태율 저하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대사질환으로는 많은 목장의 공통적 질병인 케토시스, 유열, 4위전위 및 과산증 발생확률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영양소 불균형 및 비효율적인 사양관리로 인한 유생산 및 유질 저하 등의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여 많은 낙농목장의 수익에 악영향을 끼친다.

우리나라 목장의 생산성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아직도 2.5산 도태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2010년은 우리 목장에 좀 더 관심을 개체, 개체에 집중하여 체형과 산유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국내 목장도 이제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